

서남권 거점공항 부푼 꿈...지역 하늘길 뚫어야 뜬다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
상생이슈 이것부터 해결을

<2>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과 맞물리면서 차질피일 연 기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문제는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전북 새만금공항 설치 움직임이 그 정도를 더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본·중국·동남아 등을 찾는 시도민들이 인천·김해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막판 운장현 시장이 광주공항 민간공항을 분리해 먼저 이전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논의가 멈춘 상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에 수시과제로 의뢰한 '광주-무안국제공항 효율적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가 7월중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원은 양 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지자체 간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민선 6기 결국 해결 못해

호남고속철 경유 이용권역 늘어

군공항 이전작업도 서둘러야

현재 민간공항은 공군으로부터 임대해 사용중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만 결정되면 바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로 인해 제주노선으로 운영되는 광주공항의 경쟁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안공항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따라 이용권역이 전북·충남 일부까지 확대되고, 인천국제공항이나 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통해 국가 항공정책인 'One Hub(인천국제공항) 정책'을 'One Hub(인천)-Two Spoke(김해, 무안) 정책'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국내 공항 삼각축을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무안공항의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 무안군이 망운면 피서리에 32만㎡의 항공특화산

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 공항 이전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암, 무안, 해남, 신안 등지를 적정지역으로 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지난 1월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전남지사, 해남군수 등 해당지역 단체장이 공석인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대립하는 등 지역정세가 예민해져 사실상의 논의는 중단됐다.

국방부는 군사적전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예비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는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방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면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과 별개로 민간공항을 서둘러 이전해야만 지역의 하늘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군공항 문제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에 맡기고 우선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이 되는 조건을 만들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에 민주당 대표
평화당과 연정 일축
최경환 대변인 "오만한 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가 민주당평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췌기를 박았다.

추 대표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화당과의 연정론에 대해 "제가 재입하는 기간 중에는 0%"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로 11석을 추가, 130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 의석이 아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지난 15일 과거 DJP 연합을 언급하며 "정책 합의 후 연정을 구성하는 수 밖에 없다. 경제 부총리를 (평화당에서) 누가 맡고, 정의당도 하나 맡는 식으로 권력을 배분해야 문제가 정부가 성공한다"고 연정론을 꺼냈다.

한편, 추 대표의 이날 연정 '0%' 발언에 대해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그런 태도로 하반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만과 자만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록 "매주 한번씩 도민과 현장 간담회 열겠다"

전남지사 취임기획단 출범식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18일 "매주 한번씩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무안군 남악신도시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준비기획단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현장에 답이 있다.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 또한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찾겠다"면서 "기획단도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취임준비기획단 출범식에는 김 당선인과 이관철 단장, 박기영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기획단은 도정 현안 점검과 공약 구체화, 취임식 등 취임 실무를 맡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지방행정과 농업·수산, 문화·관광과 신재생에너지·R&D, 도시계획·환경, 복지·여성, 해양·조선 등 각 분야의 정책자문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취임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도정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결하게 받되, 현안 중심의 밀도 있는 토론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18일 '민선7기 전남도지사 취임준비기획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도정현안 중심 업무보고를, 26일에는 당선인 공약 중심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8일까지 도정 업무보고를 종합정리한 뒤 30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이관철 추진단장은 "획기적 전남 발전을 이룰 전환기가 마련됐다"며 "도민 행복시대를 위해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제, 공약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자문위원장은 "기술 변화를 전남에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 진도를 빨리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에 새 기술을 접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 혁신과 변화하는 데 정책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 지방선거로 지역주의 정치 끝났다"

문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크게 3가지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의 진행 상황을 30여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며 지켜본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덜 실감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들의 정치를 벗어나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준 국민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

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서실과 내각이 정말 잘해줬다. 선거 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에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비서실 직원 모두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회의를 볼 수 있게 했다"며 "직회의 논의 내용을 직접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소에 이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왔으나 한편으로는 민감한 현안도 있고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간 실현을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Summer
여름휴가를 부탁해!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팩

중국/몽골

몽골

1,599,000원~

○코스 ○울란바타르/테를지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3박 5일 7/28, 8/6, 8/10, 8/14, 8/18
4박 6일 8/1

#별이 쏟아지는 몽골 밤하늘 #푸른초원#게르수막

상해

329,000원~

○코스 ○상해/항주/주자각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자각 냇놀이

상해/장가계

1,190,000원~

○코스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이모여

일본

북해도

1,299,000원~

○코스 ○북해도(홋카이도)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7월 18일-8월 17일 (총 18회)
* 출발일 날짜별 상이

#라벤더전국 후라노 #노보리벳츠 온천

오사카

603,400원~

○코스 ○오사카/고토/나라 3일,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금요일 2박 3일
월,목,금,일요일 3박 4일

#사승공원 #알양관장정 #다양한 특식

동남아/대만

방콕

407,800원~

○코스 ○방콕/파타야 5일,6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목요일,토요일 3박 5일
토요일,일요일 4박 6일

#코끼리레킹 #파타야시 #다이내믹 여행지

세부

499,000원~

○코스 ○세부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6월 30일부터 취항시작 #동남아 대표휴양지

다낭

755,600원~

○코스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분경투어 #후에전통가

러시아

대만

599,000원~

○코스 ○대만/지우펀/야루 3일,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금,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떡거리,불고기떡

블라디보스톡

1,599,000원~

○코스 ○블라디보스톡 5일,6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3박 5일 7/26, 8/2, 8/9
4박 6일 7/29, 8/5

#가장 가까운 유럽 #유럽풍의 노란건물들

하나투어가 추천하는 BEST 무안출발 여름휴가상품 총집합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